

평전출판의 의의와 어려움

‘닥터’ 노먼 베쑨, 마르크스, 간디,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호치민, 그리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인물들이 있다. 참세상을 꿈꾸며 시대의 모순과 불의에 정면으로 맞선 혁명가나 자신의 영역에서 위대한 업적을 일궈낸 사상가와 예술가들의 불꽃 같은 삶에서 우리는 무한한 감동을 받는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어수선한 때에야 더욱 그러할 터, 진정 참다운 인간의 형상을 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최근 몇 년 사이, IMF 지원체제 때보다 더한 불황이라는 출판계의 사정과는 무관한 듯 인물 평전의 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매주 신간서적에 한두 권 정도는 포함

되어 있으며, ‘위인’이라 하면 으레 끼게 마련인 혁명가나 사상가는 접어두고라도 펠레, 오드리 헵번, 제임스 딘, ‘을사오적’ 이완용까지! 인물의 분포도 다양하다. 또한 출판시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소설시장의 침체와는 달리 시장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판매량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서점가에서조차 의외다 싶은 반응이다. 종수를 따져보더라도, 한때 제작자들 사이에서 ‘게바라 관형’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평전출판의 붐을 일으킨 《체 게바라 평전》이 출간되던 해(2000년) 불과 20여 종에 그치던 것이 최근 2,3년 사이에 무려 200여 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서점 매장에는 평전 코너가 따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고, 온라인 서점에서

박문수_실천문학사 편집국장

역사인물을 찾아나서는

는 ‘인물/평전’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솔찮은 재미를 보는 중이다. 한 인터넷 서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분야의 매출이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성장했다고 한다. 신생 출판사 중에는 아예 출발부터 평전 출간 전문을 선언하고 나서는 곳도 있었다.

지난 얘기를 들추어내자면, 1990년대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소설 동의보감》이 출간된 뒤로 ‘소설’ 자만 갖다 붙이면 된다는 장삿속에 ‘소설 무엇무엇’ 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바야흐로 2000년대는 ‘무슨무슨 평전’의 시대가 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편에서는 ‘말꼬리에 파리가 천 리 간다’는 격으로 바람에 기댄 거품 출판이라 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한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출판문화가 성숙했다는 증거이자, 칭찬 일변도의 도식적인 위인 전기에 길들여져 왔던 독자들의 수준 또한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평전출판의 열기를 바람직

행복한 길 찾기

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분명 평전출판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출판기획자나 편집자로서는 한번쯤 뛰어들고 싶은 매력적인 분야이다. 판매 시장 또한 틈새일지라도 비좁고 들어갈 만큼은 열려 있다고 본다. 또,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전출판이 생각만큼 쉬운 것만은 아니다. 기획에서 출판까지의 과정에 상당한 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공력을 들인 만큼 잘 된다(거칠게 말하자면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한 사람의 삶을 한 권의 책에 오롯이 담아낸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평전출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인물 선정에 있다. 뚜렷한 선정 기준이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웬찮은 원서가 있으니 한번 내보자’는 쪽으로 쏠리게 마련인데, 경계해 마지않을 일이다. 설령 인물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산 넘어 산이다. 외국 인물인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를 선정할지를 놓고 또 고민해야 하고, 국내 인물인 경우에는 여러 요소를 갖춘 마땅한 집필자를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사실 국내에서 출간되는 평전은 외국 저자가 쓴 외국 인물에 대한 평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국내 인물에 대한 평전 중에 《이상 평전》이나 《전태일 평전》 같은 훌륭한 저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수로 보자면 외국 평전에 비해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번역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텍스트를 찾으면 되니 번역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번역 출판인들 손바닥 뒤집듯 쉽기만 하라. 역사의 흐름은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꿰뚫



이 글을 쓴 **박문수**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출판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이래 지금까지 책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실천문학사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없으니 직접 집필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 모험이 있다. 마땅한 필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은 만만치 않고 시간은 오래 걸리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다. 출판사로서는 이왕 뜻을 둔 바에야 당연히 길게 내다보고 여러 면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집필 기간이 길게는 5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2,3년인데, 국내 출판 풍토상 속도감에 젖어 있다 보니 진득하니 참고 기다리는 끈기가 부족한 탓이다. 《체 게바라 평전》의 저자 장 코르미에는 10년 동안 자료를 수집했고, 《마테오 리치》의 저자 히라카와 스케히로는 30년에 걸쳐 집필했다고 하는데, 그저 감탄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듯싶다.

이렇듯 평전출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앉아서 먼산바라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저 역사의 골짜기에 묻힌 인물들을 되살려내는 숭고한 작업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어보는 안목과 지식을 두루 갖춘 번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국내인물 평전 집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외국어 해석하는 기능만 가지고서야 그 인물의 삶이 글 속에 녹아들 리가 없다. 자연 감동이 떨어질밖에.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웬만한 글솜씨를 갖추지 않고 서야 어디 만만한 일인가. 결국 편집자로서 의당 해야 할 일이지만 운문을 하고 몇 번이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출간 일정은 예정보다 늦어지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꼴이 되고 만다. 편집자로서는 회의가 들 만큼 상당히 곤혹스러운 순간이다.

국내 인물의 경우에는 또 어떠한가. 애초부터 원저자

사람의 향기가 배어든 평전은 삶이 고단한 이에게는 위안을 주고,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힘이 있다. 위대한 인물의 평전을 모범으로 삼아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야 편집자로서는 더없는 행복이다. 또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어수선한 세상의 한 끝에 서 있자니, 내 삶의 지표가 되어줄 '인물'이 새삼스럽다. **☞**